

미술관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논하다

미술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독특한 외관의 건물을 만난다. 물론 평범한 건축도 있지만 대부분 미술관의 정체성에 기반한 건물이다.

전시실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벽면에 걸린 작품이다. 작가들의 창작열정이 투영된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이 작품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해진다. 또한 오래된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어떤 보존복원 기술을 활용하는가에 대한 호기심도 생긴다.

미술관을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부분을 다큐를 통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특히 다큐 영화 외에도 파블로 피카소, 빈센트 반 고흐 등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들도 볼 수 있어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은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다큐멘터리 영화 국립현대미술관 필름앰비디오 순회상영 프로그램 '미술관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선보인다.

이번 다큐는 5개국 미술관 취재를 토대로 전시를 비롯해 소장품 관리, 보존복원, 해설 등 미술관의 전반적 역할에 대한 정보에 초점을 맞췄다.

이지호 관장은 "이번 상영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미술관에서 다뤄지는 다양성과 포용성, 접근성 등을 토대로 향후 미술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사유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선보이는 작품은 '내셔널 갤러리'. 미국의 영화감독 프레데릭 와이즈먼이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12주가량 체류하며 촬영한 다큐다.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에 중심을 두고 어떻게 작품을 복원하고 전시를 해설하는 지 세세하게 보여준다. 파블로 피카소, 빈센트 반 고흐 등 세계적 거장의 전시도 엿볼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필름앰비디오 협약 '미술관을 말할 때...' 다큐영화 5편 전남도립미술관, 13~28일 상영



도립미술관이 13일~28일 다큐 영화를 상영하는 '미술관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선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라토리씨, 예술을 보러 가다' (왼쪽)과 '내셔널갤러리'.

미술관 내부의 복합적 이해관계를 다룬 '미술관'은 란 탈 감독이 예루살렘 국립이스라엘미술관에서 발생한 일들을 깊이있게 다뤘다. 감독은 서로 다른 사회적 문화적 배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술관 속 인물들을 초점화하며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또 해소되는 장소로서의 미술관을 보여준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국립미술관 증축 과정을 10년간 추적한 다큐도 있다. 우커 호헌데이크의 '라익스 미술관의 새 단장-더 필름'이 그것. 영화는 생소한 미술관 철거와 복원 외에도 소장품 구입, 예산 배정 등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예술이라는 공공유산을 어떻게 후세대에 물려



주어야 하는지 미술관 관계자들의 모습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색 인종 작가의 작품 구입을 증진하는 1년 반 과정을 기록한 사라 보스 감독의 '화이트 볼스 온 월스'는 포용성과 다양성을 환기하는 작품이다. 영화 제목은 1995년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그룹 게릴라 걸즈가 스테델리크미술관 앞에서 백인 남성 위주의 미술사와 전시를 비판하며 외친 'White Balls on Walls'라는 구호에서 차용했다. 새로운 미술사적 관점, 채용의 다양성은 중요한 화두였다.

마지막 영화는 전시 감상에 대한 대안적 방법을 모색한 다큐다. 일본 가와우치 아리오 감독의 '눈이 보이지 않는 시라토리씨, 예술을 보러 가다'는

시각장애인 미술애호가 시라토리 겐지의 전시 감상을 영상으로 옮긴 것. 시라토리는 비록 볼 수 없지만 독특한 감상법을 개발해 20년째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이색적인 감상자다.

이지호 관장은 "이번 다큐멘터리 영화는 일반인들이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미술관의 다양한 부분들을 담고 있다"며 "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사유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큐 관람은 미술관 현장 발견 및 네이버 예약 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감각적 사실'

경험된 추상

'감각적 사실'

서용인 개인전, 고흥 도화헌미술관

도화헌미술관 박성환 관장은 그의 작품에 대해 "본색적 추상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아온 추상화와는 결이 다르다"며 "면밀하게 사유하고 따져서 작업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용인 작가가 고흥 도화헌미술관에서 30일까지 전시를 연다.

박 관장에 따르면 양봉을 하는 서 작가는 캔버스를 들고 다니며 작업을 한다. 양봉을 하는 작가는 벌의 분비물을 이용해 작업을 하는데, 일반의 그림과는 다른 아우라가 느껴진다. 그의 작품이 다분히 이색적이며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추상작업은 보이는 것 이면 너머의 세상을 형상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 다른 의미와 해석을 환기하는 추상은 새로운 접근법을 요한다. 오늘 본 것이 내일과 다를 수 있고, 내일 본 그림이 미래의 어느 날 다른 의미로 확장되기도 한다.

이번 모든 작품은 '감각적 사실'이라는 동일한 제목을 달고 있다. 작가는 경험된 사실을 토대로 작품을 추상적으로 구현한다. 논리적이면서도 사실적이며 감각적이다. 얼핏 논리와 추상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도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감각적 사실' 작품들 사이에는 나름의 친연성이 있다. 작가는 '회화적 사실주의'를 좋아하는데 점점 사각형은 인간의 감각의식을 드러낸다. 복잡하면서도 단순하고, 분석적이지만 비논리적인 분위기를 환기한다.

서 작가는 "입체주의나 원근법, 또는 빛을 재현하는 회화적 기법과 함께 색에 이르는 등의 감각의식을 작동하게 한다"며 "이런 것들을 회화적 관념운동, 또는 감각 운동이라 말하고자 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한편 서 작가는 중양대 서양화과를 졸업했으며 경기도 연천에서 양봉을 하며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바비 야르'를 다시 만난다

광주시향 '교향악축제 프리뷰', 24일 광주예술의전당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초연했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3번 '바비 야르(Babi Yar)'에는 남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 쇼스타코비치는 1941년 나치 친위대가 우크라이나 키이우시에 유대인을 모은 뒤 36시간 동안 3만4000여 명을 학살했던 '바비 야르의 학살'을 모티브로 이 곡을 창작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교향악축제 프리뷰'

Babi Yar'를 펼친다. 반 년 만에 '바비 야르' 재연주를 비롯해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레퍼토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초등학생부터 관람 가능)

이번 공연은 오는 26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24 교향악축제'를 미리 만나보는 자리로, 예술의전당 공연에 출연할 예정인 출연진과 프로그램을 사전에 프리뷰 할 수 있는 기회다. 예술감독 홍석원이 지휘를 맡으며 피아니스트 신창

용이 협연.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비롯해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3번 바비 야르'로 관객들을 만난다. 특히 교향곡 '바비 야르'는 느린 템포의 아다지오로 비극을 형상화하는 3악장 '가게에서'부터 아주 느리게(Largo) 연주되는 4악장 '공포' 등이 포함돼 유대인 학살의 비극을 떠올리게 한다. 베이스 김대영, 노이오페라코러스 등이 출연해 호흡을 맞춘다.

피아니스트 신창용은 2018년 지나 바카우어 국



베이스 김대영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티켓링크 등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김주홍과 노름마치가 '허튼소리 Corea Beats' 공연을 펼치는 모습. <광주북구문화센터 제공>

'콘서트 인 북구' 첫 공연 '허튼 소리'

북구문화센터, 25일 '김주홍과 노름마치' 무대

현대와 전통의 조화라는 동시대성의 특징을 담아 선보이는 '도시 국악'. 자연의 카오스와 질서를 국악으로 형상화해 펼쳐 내는 '콘템포러리 음악'.

북구문화센터가 브랜드 공연 시리즈 '콘서트 인 북구' 첫 공연으로 '허튼 소리 Corea Beats'를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펼친다. 이번 주인공은 EDM 사운드와 전통음악을 결합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그려 온 국악팀 '김주홍과 노름마치'.

노름마치 김주홍 예술감독은 "이번 공연은 그동안 사물놀이의 타악기를 기반으로 창작했던 전통 음악 방식을 확장해 노래, 구음장단, 키보드, 베이스 등 선율을 강조한 작품들로 구성했다"며 "EDM, 대중가요, 명상음악 등을 접목해 장르를 정의하기 힘든 곡들을 연주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어 "전통음악의 DNA를 지키면서도 음악적 확장을 모색해 '동시대성'을 수용하는 레퍼토리를

선보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공연은 '다채롭다'. 고려속요의 가사를 차용해 만주별판을 호령한 기마민족의 호방함을 상상하는 노래들, EDM 사운드와 전통음악을 접목한 노래 등을 레퍼토리로 편성했다.

김주홍과 노름마치는 해외 65개국 220여 개 도시에서 한국음악을 소개해 온 팀이다. 2014년에는 유럽 최대의 뮤직마켓 '월드뮤직엑스포'에서 이름을 알렸다.

북구문화센터 문나리 홍보담당은 "올해에도 콘서트인 북구 '허튼소리' 공연을 시작으로 어린이날 특별기획 등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예술 공연을 기획해 문화향유 기회를 넓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전석 1만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어린이박물관 수어해설 영상 화면.



전시실 내 QR코드 안내문. <국립나주박물관 제공>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박물관 감상해요

국립나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시 수어 해설 영상 제작

장애·비장애 관람객 구분 없이 박물관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수어 해설 영상이 제작돼 눈길을 끈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김상태)이 어린이박물관 전시 수어 해설 영상을 제작하여 공개한 것. 이번 수어 해설 영상은 음성과 수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수어는 청각장애인 수어해설사가 설명해 정확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각 전시 공간의 다채로운 체험 방법도 담고 있어 박물관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영상은 '문화재를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이라는 전시 주제에 따라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고고학자를 비롯해 소장품관리자, 전시기

획자, 교육연구사 등 박물관 내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분야의 학예연구사의 역할 등이 소개돼 있다.

관람객은 전시 공간에 배치한 QR코드를 통해 휴대전화로 감상할 수 있다. (국립나주박물관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상태 관장은 "이번 수어 해설 영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누구나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취지에서 마련했다"며 "나주 박물관은 앞으로도 공간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 개발은 물론 쾌적하고 편리한 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30일까지 참여자 모집

인공지능과 인간 의식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인간과 비인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세계와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와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융·복합 미디어아트 입주 작가 프로그램인 '2024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참여자를 모집한다.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매개로 한 창·제작 플랫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술가들 비롯해 연구자, 엔지니어 등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 주제는 '인공지능·인간·다중우주'. 인간·비인간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세계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의미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